

<환 영> 여름선교가 마쳤습니다. 수고한 모든 팀원들을 격려하며 받은 은혜와 에피소드를 간단히 나누어봅시다.

<찬 양> ♪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 ♪ 나의 안에 거하라

<말 씀> 롬2:1~11

1. 본문의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어를 고려하여 답변해보세요.(롬2:1)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의 심판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2:2)
2. 진리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기록될 당시의 헬라 철학적 접근으로 풀어봅시다. 예수님은 죄의 기준을 어디서부터 두고 계십니까?(마5:27~28) 우리의 동기와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경험을 서로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3. 십자가 사건은 어떤 인생도 판단하거나 입을 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린도교회에 주신 말씀(고전4:1~6)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며 서로 나누어봅시다.
4.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풍성함은 어떠한지(롬2:4),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성실하심은 어떠한지(애3:22~23) 찾아서 읽어봅시다. 우리 자신의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 근거하는지 각자 발표해봅시다.
5. 어떤 일을 하다가, 또는 어떤 상황을 보면서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자비와 긍휼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성실에 붙들려 사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서로 나누어봅시다.
6. 톨스토이의 ‘세 가지 의문’이란 단편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지금 그 일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의지하여 선교적 제자로서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일을 결단하며 발표해봅시다.

<기 도>

1. 개인/가정: 하나님의 자비와 성실에 묶여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도록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풍성히 나누는 가족이 되도록 만남과 결혼, 태의 문이 열리는 열매가 가득하여 믿음의 가정과 경건한 자손들의 부흥을 위하여
2. 교회: 강단에서 진리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 예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예배되도록 제자훈련(청장년3기,대학청년1기)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양육되도록 성경암송학교(9/4~10/16)와 많은 소그룹들을 통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나누는 일이 확산되도록 새벽과 철야 등 모든 기도회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기도의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도록 장로, 권사, 집사 등의 중직자와 간사, 목자, 교사, 리더 등의 사역자들의 강건함과 지혜와 분별함위해
3. 나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지켜주시고 전쟁을 막아주시며, 통일한국과 북한복음화를 위해 기도로 준비토록 이 나라의 통치자와 위정자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설교요약>

1. 하나님은 마음의 실체와 동기에 따라 심판하신다

롬2장 1절의 한 문장 안에 “판단”이라는 단어가 세 차례나 등장하여 강조합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를 향한 지적일까요? 롬1장에서 로마 중앙정부로부터 시작되어 온 시대를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추잡한 역사의 광기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헬라문명과 로마권력에 의해서 버무려진 시대의 부도덕한 타락상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갑작스럽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2장은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즉 2장의 판단이라는 주제는 1장의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복음을 먼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로마 제국 안에서 벌어지는 이방인들의 추잡한 죄악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2:2) 진리의 반대개념은 거짓이 아니라 현상입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헬라 문화와 철학이 시대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 속에서 진리의 반대개념은 현상입니다. 현상의 반대말은 실체, 동기입니다. 즉 여기서 진리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동기와 실체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5:27,28) 이 기준 앞에서 심판을 비켜갈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죄를 들킨 성도와 들키지 않은 성도가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분열하고 있는 고린도교회에게 맡긴 일에 충성해야 하며,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합니다.(고전 4:1~6) 말씀의 대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건 앞에서 어떤 인생도 입을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동기와 실체에 따라 인간을 판단하십니다.

2. 하나님은 무궁한 인내와 자비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셨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인생들을 향한 무궁한 인내와 자비를 가지고 계십니다.(2:4) 적어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불하시고 죽으셨을 때에는, 그 분께서 시작하신 구원을 완성하시고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보증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은 아들의 목숨을 걸어 목적지까지 반드시 이르게 하겠다는 보증이요, 약속입니다.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애3:22,23)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성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분의 전능하심에 근거하여 우리를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각오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3.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수 없으며,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톨스토이는 “세 가지 의문”이란 단편에서 제일 중요한 때는 지금, 제일 중요한 사람은 지금 그 사람, 제일 중요한 일은 지금 그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와 성실에 묶여 세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작은 일일지라도 큰 일로 여기며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일의 세속적 가치의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홀로 있을 때 가장 힘겨운 싸움을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셋째, 긍휼과 자비에 묶인 자에게 절대 포기는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불굴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생은 일등이 목적이 아니라 완주가 목적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 없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비와 성실에 묶여 있어 그 분의 통치만으로 이끌리는 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